

축산시황*



■ ‘미국산 쇠고기 뜨거운 감자’ 대두

미정부 · 의회 한미FTA와 연계 움직임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농림부 축산국 안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자리 잡고 있다.

뼈조각 문제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금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한미 FTA와 쇠고기 수입문제를 연계하겠다는 입장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축협조합장들과 간담회를 갖은 이상길 축산국장은 현 검역 기조를 유지할 경우 쇠고기 수입은 당분간 어렵기 때문에 우리 축산분야로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다른 산업부분의 입장으로 인해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고 답답한 심정을 내비쳤다.

이상길 국장은 현재 EU를 제외한 약 60여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는데 40개국은 아무런 제한 없이 수입을 하고 14개국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검역조건으로, 나머지 6개국도 나름대로의 위생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하며 하지만 이들 국가 중 우리나라만이 미국으로부터 수입실적이 없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검역조건의 대만과 싱가포르의 경우도 뼈조각 문제가 있었지만 의도하지 않았기에 뼈조각이 일부 들어간 것을 묵인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현재 수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하고 미국 측이 이를 들어 강하게 압박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무역관례상 농축산물의 검역은 전

수검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만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X-ray 검사도 우리나라만 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국장은 만약 BSE 안전성 때문에 현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뼈조각이 BSE으로부터 위험하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미국도 우리 쪽도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제수역수무국도 다른 가축질병전염병과 같이 BSE 청정화 개념이 아직 세워지지 않아 양국의 쇠고기를 둘러싼 트러블은 계속될 것 같다고 말하고 다만 우리나라의 위생검역 기조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협상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어 만약 미국이 검역 위생조건을 충족시켜 다시 수입이 제기 된다면 우리 한육우산업과 양돈산업에 타격이 예상된다며 현재 소사육 두수가 꾸준히 늘고 있어 걱정이라며 한육우의 시장점유율은 40%대가 중장기적으로 적당하다고 한육우산업을 연착륙시킬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돼지의 경우도 질병 때문에 잠잠한 상황이지만 사육두수가 너무 많아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가격 폭락이 예상된다며 농가 스스로 시장상황을 내다보고 사육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축산경제신문 김재민 기자 [최종편집 : 2007/02/09]



■ 낙농육우협 이승호 회장 연임



한국낙농육우협회 제13대 회장에 이승호 현회장(사진)이 연임됐다. 이회장은 13일 축산회관에서 대의원 142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7년도 정기총회에서 92

명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이회장은 이날 선거에 앞서 "전국단위 낙농제도 개편과 무허가 축사 양성화 및 정책연구소 설립 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통해 낙농산업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 대한양돈협회장 김동환씨 당선



대한양돈협회 제16대 회장에 김동환 후보가 당선됐다.

김동환 양돈협회장 당선자는 지난 9일 대전 샤프그레이스 호텔에서 개최된 제28차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총 163명

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85표를 획득해 78표를 얻은 최영열 후보를 근소한 차로 따돌려 당선됐다. 김동환 당선자는 "마음을 열고 양돈인의 한분, 한분의 의견을 소중히 수렴하는 지도자가 될 것"이라며

"양돈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힘을 가진 협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신임 김동환 회장은 오는 21일부터 협회 16대 회장으로써 공식업무를 시작한다.

농업인신문 위계욱 기자 기사 [최종편집 : 2007/02/16]



■ 가시밭길 닭고기 포장유통 확대

조속 전면시행 - 자율화 의견 '팽팽'

전면시행 - '반쪽' 체제 취지 무색 · 시행업체 원가상승만 자율화 - 현실상 불가 · 중소기업체 시설교체 불가로 고사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확대가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다. 아직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중소기업 이하 도계장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다 이미 시행중인 1일 8만수 이상 도계장 사이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 '반쪽' 제도

현재 포장유통 의무화 대상 사업장으로 포함된 (주)하림과 (주)마니커, (주)채리부로, (주)동우, (주)올품 등 모두 5개사. 하지만 이들 업체 가운데 자사 생산 닭고기 전량에 대해 심부온도를 2℃이하로 낮춰 밀봉 포장을 한 뒤 반출하는 사례는 극히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이들 대부분은 지난 7

축산시황*

일 농림부 주최로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한강CM(주)에서 개최된 간담회를 통해 조속한 전면시행과 함께 정부의 확실한 의지표명을 희망했다.

현행법대로라면 수당 2백원 이상의 원가 상승요인이 발생하지만 개체포장 수요가 아직 미미한 현실 속에서, 그것도 포장유통 의무화가 도계장에 국한된 지금의 '반쪽 시행'만으로는 나머지 업체들과의 가격경쟁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다보니 상당수 업체들은 납품처에서 별도의 개체포장 요구가 없는 경우 대부분 형식적인 포장과정만을 거친채 공급에 나서고 있는 현실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도계장 단계에서의 정부규정대로 포장유통은 물론 유통단계까지도 대대적인 정비가 뒤따라야 하는 만큼 전면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확산되면서 일부 의무화 대상업체들 사이에서는 확실한 전면시행 일정이 나오기전까지 시설 투자를 유보할 수 밖에 없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 현실성 '공방'

한 도계장 경영자는 “지금상태에서는 설령 도계단계에서 완벽히 포장유통을 했다고 하더라도 비포장에 비해 부패속도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겨울철인 지금이야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기온이 올라가면 문제점이 속출, 오히려 소비자들이 국내산 닭고기 자체를 외면하는 화(禍)를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미 관련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업계가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주장을 하기 힘든 만큼 공식적 입장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것일 뿐 이라

고 전하기도 했다.

반면 하림측은 “의무화 이전에도 개체포장을 통해 유통한 결과 여름철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나서 포장유통의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상위 5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포장유통 의무화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사실상 포장유통 의무화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한결같은 입장이다.

플러스 푸드 홍철호 대표는 당시 간담회에서 “심부온도를 2℃이하로 낮춰야 하는 포장유통 의무화 체계하에서는 상위 몇 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업체들은 사실상 생존이 어렵다”며 “따라서 기존 시설하에서 심부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나올 때까지는 전면시행은 유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부온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에어칠링 시스템이 필수지만 최소 수십억 이상의 자금력과 증축을 위한 부지가 필요한데 그나마 정부지원이 이뤄진다고 해도 담보능력이 없어 현실적으로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구조조정 전략?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방침이 도계업계 구조조정을 위한 전략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외국에서도 포장유통 의무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만큼 의무화 자체를 철회, 소비자들의 선택에 맡겨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다만 포장유통 의무화가 거론될 당시 입장이 없었던 지적에 대해 “단순 포장개념만 생각했을 뿐 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형태로의 시행은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오히려 구



체적인 시행과정에 있어서는 공청회 등을 통해 기술적인 검토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부측은 한마디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반응이다. 포장육 유통의무화는 정부 임의가 아닌 계육업계의 수차례에 걸친 요구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와서 의무화 자체를 거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농림부 윤기호 축산물위생과장은 간담회를 통해 “의무화에 대한 방침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사를 수차례에 걸쳐 확인하며 다만 시행령 조문 기준이 엄격해져 매년 개정을 해가며 의무화를 확대시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농림부의 한관계자는 이와 관련 “포장육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에도 나설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서 의무화 철회를 요구하는 업체들과의 갈등이 점차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최종편집 : 2007/0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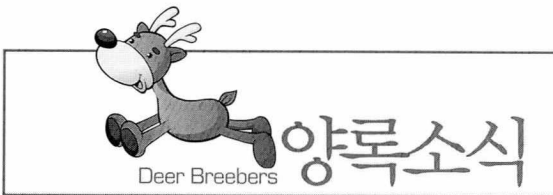


여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회장 선거에서 강회장은 36명으로부터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강회장은 “양육농가 간 화해와 단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Others News 기타소식



(주)에스씨에프 (대표이사 김정인)는 지난 2월 2일 충남 당진군 순성면 중방리 소재 국내 최첨단 신설비를 갖춘 신공장을 준공함으로 국내 사료 제조분야에서 더욱더 특별한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당진 신공장은 허가생산량(일산) 360톤 규모로 일반 양축사료는 물론 어류용 배합사료, 기타 특수사료 등 고품질 다품종의 배합사료를 제조 공급함으로써 시장을 선도하는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에스씨에프 당진공장은 국내최초로 항생제라인과 무항생제라인을 설계단계부터 분리시켜 고객에게



■ 양육협회 회장에 강준수씨 당선

한국양육협회는 15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강준수 전 한국사슴연합회장을 16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대의원 84명이 투표에 참